김민재·이강인 이적, 군대가 좌우한다…병역, 협상 변수로

김민재, 군사훈련과 바이아웃 발동기간 겹쳐

이강인, AG·올림픽 출전 이적에 발목 잡을 수도

김민재(나폴리)와 이강인(마요르카)이 이번 시즌 후 유럽에서 손꼽히는 명문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병역의무가 이적 성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민재는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리생제르맹, 토트넘 등 세계 최고 수준 구단들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소속팀 나폴리의 우승이 유력한 가운데 나폴리의 1990년 후 33년 만의 우승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김민재를 향한 관심은 여름 이적시장이 다가올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나폴리가 치를 이탈리아 세리에A 리그 마지막 경기는 오는 6월4일 삼프도리아전이다. 6월10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끝나면 유럽 축구 2022~2023시즌이 마무리되고 약 한 달에 걸친 휴식 끝에 유럽 구단들의 다음 시즌 준비가 시작된다.

김민재가 정상적으로 새 팀에 합류하고 적응을 거쳐 전술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이적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실제로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 7월 말 한국을 찾아 프리시즌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문제는 김민재가 이번 시즌 종료 후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민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김민재는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3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김민재는 지난해 6월 예술·체육요원으로 등록을 마쳐 등록 후 1년 안에 3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민재가 오는 6월 중순에 훈련소에 입소할 경우 7월 초에 퇴소하게 된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A매치 2연전에 출전할 경우 훈련소 입소가 늦춰져 7월 중순에야 퇴소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김민재와 나폴리 간 계약에 포함돼 있는 바이아웃 조항이 이 기간에 활성화된다. 김민재 계약에는 오는 7월1일부터 15일까지만 발동되는 약 5000만 유로(700억원)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김민재를 영입하려는 구단은 700억원 넘는 이적료만 제시할 경우 나폴리 개입 없이 김민재와 개인 협상을 할 수 있다. 반면 이 기간이 지나면 나폴리가 협상 주도권을 쥔다. 김민재는 나폴리가 구단 간 협상을 마친 구단에 한해 개인 협상을 할 수 있다. 김민재로서는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지는 셈이다.

클린스만호의 출전 요구에 따른 훈련소 입소 지연에다 나폴리의 비협조적인 태도까지 겹칠 경우 김민재는 이번 이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최근 기량이 급격히 향상되며 유럽 축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강인(마요르카)의 경우도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세계 최고 인기 프로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여 왔다. 아스톤빌라와 뉴캐슬, 웨스트햄, 번리 등이 관심을 보였는데 여기에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손흥민 소속팀 토트넘이 추가됐다.

이강인이 경기를 치를수록 점점 더 기량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시즌 막바지가 되면 이강인을 원하는 구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유럽 강호들이 이강인을 원하고 있지만 이적 과정에서 이강인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차출 문제가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

이강인이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현역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대체복무를 하려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내년 7월 파리올림픽 메달이 필요하다. 파리올림픽은 리그 개막 직전인 8월10일에 끝나지만 아시안게임은 유럽 주요 리그가 시작한 뒤인 9월에 개최된다.

한국 프로축구 K리그1 김천 상무에 입단해 군복무를 할 수도 있지만 이강인은 유럽 무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대체복무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강인은 금메달 획득 확률이 올림픽보다 높은 아시안게임을 선호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아시안게임이 유럽 리그가 개막한 뒤에 열린다는 점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은 오는 9월19일부터 10월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리그 6~7경기를 뛸 수 없는 셈이다. 사전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강인은 더 많은 경기에 결장하게 돼 새 구단에서 맞는 첫 시즌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시안게임은 이강인의 팀 내 입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가 팀에 합류할 때는 이미 큰 틀의 전략과 전술이 짜인 상황이라 뒤늦게 녹아들기에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유럽 강팀의 경우 팀 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자칫하다가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 출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이강인 이적 협상 과정에서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못 딸 경우 이강인은 대체복무를 위해 내년 파리올림픽까지 출전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강인 측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구단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고민이 커질 김민재와 이강인이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근대5종 전웅태, 월드컵 3차 대회 우승…세계 1위 탈환

펜싱·승마·수영·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534점…서창완 4위

근대5종 간판 전웅태, 시즌 첫 우승. (사진=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웅태(광주광역시청)가 2023시즌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우승했다.

전웅태는 4월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월드컵 3차 대회 남자부 결승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점수 합계 1534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2위는 모하나드 샤반(이집트 1530점), 3위는 마르틴 블라흐(체코 1525점)다.

함께 출전한 서창완(전남도청)은 4위(1523점)에 자리했다.

이번 시즌 국제대회에서 거둔 첫 우승이다.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전웅태는 이번 우승으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지프 충(영국)을 제치고 약 2년여 만에 세계랭킹 1위 자리도 되찾았다.

전웅태는 이번 결승에서 펜싱라운드 랭킹라운드 1위(22승)를 시작으로 수영 4위, 승마 11위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저 런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웅태는 경기 후 "2차 월드컵에서 은메달에 이어 마침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매우 기쁘다. 우리는 지난 월드컵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럽에 머물러 훈련했고 오늘 결과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세계선수권대회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웅태는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2연패를 노린다.

만리장성에 막힌 한국 탁구, WTT 방콕대회서 은메달만 4개

중국의 '만리장성'에 막힌 한국 탁구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텐더 방콕 탁구대회에서 은메달 4개에 만족해야 했다.

장우진(국군체육부대)은 2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린가오위안(중국)에 3-4(11-9 10-12 19-17 9-11 5-11 11-4 9-11)로 석패했다.

임종훈(한국거래소)와 함께 나선 남자 복식 결승에서도 중국의 린가오위안-린스둥 조에 0-3(6-11 3-11 1-11)으로 져 준우승한 장우진은 개인전에서도 우승에 실패했다.

여자 단식 결승에 오른 추천희(삼성생명)는 1 천싱퉁(중국)에 1-4(2-11 11-6 9-11 13-15 5-11)로 져 준우승했다.

혼합복식 결승에서도 임종훈-신유빈(대한항공) 조가 린가오위안-천싱퉁 조에 2-3(11-7 11-9 9-11 6-11 8-11)으로 역전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로써 한국은 4개 종목에서 결승에 올랐지만, 모두 중국 벽에 막혔다.

WTT 주관 대회 일정을 마친 한국 대표팀은 오는 5월20~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한다.

뉴시스

장우진(17위)이 4월2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텐더 방콕 2023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린가오위엔(10위·중국)과 경기하고 있다.

이다연, KLPGA 챔피언십 정상…'통산 7승'

지난해 팔 인대 수술 받고 복귀 후 4번째 대회 만에 우승

'작은 거인' 이다연이 역경을 딛고 다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상에 섰다.

이다연은 4월30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산길·숲길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3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이로써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대회 정상에 올랐다.

2021년 한화클래식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다시 우승한 이다연은 통산 7승째를 챙겼다.

메이저대회에서만 통산 3번째(2019년 한국여자오픈, 2021년 한화클래식, 2023년 KLPGA 챔피언십) 우승이기도 하다.

이다연은 우승 상금 2억3400만원을 챙기며, 상금랭킹 2위(2억7165만원)로 도약했다.

대상 부문에서도 70점을 얻어 27위에서 6위(106점)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해 팔 인대 파열로 수술과 재활에 매달려온 이다연은 복귀 후 4번째 대회 만에 우승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올해 4월 국내 개막적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9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른 이다연은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18위,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 5위로 예열을 마친 뒤 마침내 정상에 등극했다.

2015년 데뷔 후 부상과 슬럼프에도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섰던 이다연은 이번에도 오뚜기처럼 재기에 성공했다.

방신실과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다연은 2번 홀(파4) 버디로 치고 나간 뒤 선두를 내주지 않았다.

또 승부처였던 15번 홀(파5)에서 4m 버디퍼트에 성공하며 방신실을 완전히 따돌렸다.

승기를 잡은 이다연은 16번(파4) 4.5m 버티로 쐐기를 박은 뒤, 17번 홀(파3)에서 8m 버디에 성공하며 우승을 자축했다.

이날 3언더파 69타를 친 박결이 공동 2위(9언더파 279타)에 올랐다.

방신실은 공동 4위(8언더파 280타)로 대회를 마쳤다.

'디펜딩 챔피언' 김아림은 3타를 잃어 공동 22위(2언더파 286타)로 국내 나들이를 마무리했다.